

초심상담자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이 연 정 이 장 희[†] 이 상 민

고려대학교 / 학생

고려대학교 /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초심상담자들이 전문상담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수준을 이해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자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상태로, 이에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로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심상담자와 관련된 문헌 조사와 상담자 인터뷰를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예비문항을 사용하여 석사 재학 이상, 상담 경력 3년 이내의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8개 문항, 6개 요인(경제적 어려움, 훈련과정 정보부족, 근로조건, 진로정보부족, 역량부족, 관계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 6요인, 18문항 모형에 대한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초심상담자 151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탐색장애검사, 상담자의 진로결정 동기 척도, 상담자 소진, 진로결정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의 활용가능성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초심상담자, 진로장벽, 진로장벽척도, 척도개발, 타당화

* 본 연구는 이연정(2022)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상담자 진로 장벽 척도 개발’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장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운초우선교육관

Tel: 043-870-8871, E-mail: janghee_lee@korea.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코로나19 이후, 우울증으로 인한 상담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1년도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울증 진료 인원이 해마다 증가했다. 또한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이 20년도에 비해 21년도에 920% 급증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건수도 19년 대비 20년도에는 131% 증가했다(후생신보, 2021.10.15.). 급증하는 상담수요와 함께 상담자 양성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담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적을 둔 학생 수가 2011년에는 5,720명이었으나 10년 후인 2021년에는 9,390명이다. 심리학과 석사 재적수의 증가율은 64.16%인데 반해 인문계열 석사 재적수 증가율은 1.58%밖에 되지 않으며, 이 외 사회계열 등 대부분의 석사 재적수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감소한 상황이다(사회계열 -3.9%, 교육계열 -24.62%, 공학계열 -3.10%, 자연계열 -6.48%, 의학계열 -21.10%, 예체능 -0.86%)(공은배, 2011; 임후남, 2021). 이러한 상담 관련 학과의 대학원생 증가는 다른 계열 일반 대학원생들의 감소 현상과 대비해 더욱 주목할만하다.

상담에 관한 수요 급증 및 상담자 양성과정 증가에 부응하여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 전문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담에서 상담자 자체가 치료적 도구가 되고, 상담자가 갖추고 있는 자질에 따라 같은 상담기법이라도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른 만큼 상담에 있어 상담자의 전문성은 중요한 요인이다(Weatherford, Brooks, & Allre, 2016). 전문상담자들은 주로 대학원 상담 심리학 관련 학과의 석사와 박사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담 관련 대학원 수업은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실습은 한 두 학기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상담자

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담 실습할 곳을 직접 찾아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실습 위주의 교육과 훈련 증가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지만, 아직 연구 활동이나 제도 개선이 부족한 상황이다(김진숙, 2005; 최해림, 김영혜, 2006). 따라서 초심상담자들이 전문상담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개선 및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송수경과 구자경의 연구(2017)에서는 28편의 초심상담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초심상담자에 대한 용어와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다. 첫째, 상담자가 되고자 상담 분야에 진입한 사람들을 초심상담자(14편, 50%), 초보 상담자(11편, 39.3%), 상담 수련생(2편, 7.1%), 초급 수준 상담자(1편, 3.6%) 순으로 표현하고 있다. 둘째, 초심상담자의 세부 기준으로 상담 경력 3년 이하(50%), 석사 재학 이상(66.7%)을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두었다.

초심상담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주제는 주로 초심상담자의 상담 성과, 초심상담자 교육, 초심상담자 발달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초심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송수경, 구자경, 2017), 초심상담자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Pica, 1998). 초심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수행불안, 내담자와 적절한 정서적 교류 유지의 어려움, 부족한 사례개념화 능력, 과도한 기대 수준, 슈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부담, 긍정적 지지를 위한 멘토의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Skovholt & Ronnestad, 2003). 또한, 대학원 교육과 별도로 외부에서 수행하는 개인 수련과정(교육분석, 개인상담실습, 심리검사, 집단 상담 등)이

수련생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신영, 2017). 김지연, 이동귀, 한나리(2009)의 연구에서도 초심상담자가 상담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의 부족 그리고 내담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는 어려움 등을 보고 하였다. 정경빈과 조성호의 연구(2009)에서는 초심상담자들이 상담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자원봉사로 만나는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의 초기 거부와 조기 종결 등으로 상담자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자책하거나 상담에 회의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imon과 Wachowiak의 연구(1983)에 의하면, 상담자들이 학업 수행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현저히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대학 상담실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담자 양성과정에 있는 초심상담자들이 진로를 유지 시키는데 취약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초심상담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상담자 발달과정에서 중도탈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Skovholt & Ronnestad, 2003). 그럼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제한적이다(정문주, 조한익, 2016). 초심상담자의 수련과정 중 중도탈락과 유지에 따른 스트레스 연구에서 제언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정경빈, 조성호, 2009). 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강지연의 연구(2009)에서도 상담 전공생들이 분명한 동기로 석사과정에 들어오지만 이후 진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석사과정 동안 자기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상담자로서 부족함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초심상담자의 수련과정 포기 경험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상담자 양성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중도 포기에 관련 경험을 탐색한 연

구가 부족하다(박신영, 2017). 초심상담자 관련 연구 대부분이 초심상담자로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초심상담자가 진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어, 상담 진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 양성과정에서 초심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어려움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심상담자들이 진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나 관련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은 일종의 상담자 진로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장벽은 직업이나 진로계획에서 자신의 진로 목표를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외적, 내적 요인들을 의미한다(Swanson & Daniels, 1995). 선행 연구들은 진로장벽이 진로 선택 및 발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손은령의 연구(2004)에 따르면,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 효능감이 떨어져, 진로결정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또한 불안 및 진로 미성숙(김은영, 2002), 진로 포부(최수옥, 2002), 개인통제소재(손은령, 김계현, 2002)가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에 차이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된 경험들에서 개인의 진로 동기, 목표, 포부,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다양한 부정적 사건, 상황들이다(손은령, 2004). 진로장벽은 맥락적, 환경적 요인으로 진로 및 직업 선택의 거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초심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어려움과 진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진로장벽이라고 하였다(노인희, 2021; 박신영, 2017; 이선미, 2018). 초심상

담자들의 다양한 진로장벽들을 탐색할 수 있다면 상담자가 되기 위한 진로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예방하고 진로단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신영, 2017).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질적연구를 통해 초심상담자의 진로장벽의 구성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초심상담자가 개인 내적 변인 또는 맥락적 요인으로 경험하는 진로장벽은 다양하였다. 내적 요인의 예로는 초심상담자들이 스스로가 상담자로 자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경험하는 우울감이 있었으며, 외적 요인의 예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근로조건 등이 있었다 (정경빈, 조성호, 2009). 이선미의 연구(2018)에서는 상담전공 교육대학원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장벽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진로동기 및 진로과정의 어려움을 탐색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상담전공 교육대학원생이 호소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훈련 과정의 부정적 경험들이 있었다. 전형적으로는 상담자로서의 자신감 부족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훈련제도의 상황과 조건 맞추기의 어려움, 학부 전공과의 차이로 인한 이론습득 과정의 어려움, 동료와 학업 및 취업 등에 관한 정보 교류 부족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예시로는 훈련비용(워크샵 참가비, 수퍼비전 비용, 수련비 등)의 부담감과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재(기간제, 계약직 등 불안정한 근로조건) 등이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교육대학원 출신 상담자로서 사설 상담센터나 기관의 진입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노인희(2021)는 상담전공 학부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상담자의 길을 걸으

면서 진로를 선택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상담전공 학부생들은 “모호한 진로정보로 인한 막막함”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였다. 하위구성 요인으로는 “미지의 세계 같은 상담직종 진로”,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음”, “대학원 진학에만 치중된 안내”가 있었다. 둘째, “상담현장 및 자기에 대한 이해 증가로 진로목표가 리셋되는 혼란감”이 있었다. 하위구성 요인으로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상태에 놓임”, “저학년 때와 달라진 직업 가치관”, “진로탐색 중 혼란스러운 자신을 알아차림”이 있었다. 셋째, “이론적 지식을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학습기회 부족”이 있었다. 하위구성 요인으로 “현장성이 부족한 교육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느낌”, “상담의 실재를 적용해 보는 학습 기회 부족”, “부족한 현장실습의 기회”가 있었다. 넷째, “스스로 역량을 의심하고 걱정함”이 있었다. 하위구성 요인으로 “실제로 상담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직업의 현실을 알게 되어 자신감이 하락함”이 있었다. 다섯째, “직업 세계에서 상담전문 인력으로 발붙일 곳 없는 학부생”이 있었다. 하위구성 요인으로 “상담직업 세계에서 학부 졸업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상담전공학부 졸업생들을 위한 고유한 일자리 영역이 모호하고 부족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생 해야 할 것 같은 상담자 수련과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하위구성 요인으로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고민”,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제한된 사례와 연구대상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상담전공의 다양한 진로 어려움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질적연구의 특성상 개방형 질문 혹은 설문지를

통해 지각된 진로장벽을 수집하고 이를 유목화하는 방식에 그쳤다. 한편, 상담자와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 상담자의 진로장벽을 측정할 때, 기존의 대학생용 진로장벽 척도를 사용하는 연구가 많았다. 대학생용으로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는 다양한 연령대와 학문적, 경험적 배경을 가진 초심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측정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심상담자들의 특성과 진로발달과정을 고려한 어려움을 측정하는 도구가 상담자들의 경험에 맞게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상담 전공의 특수성에 기초를 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초심상담자들이 고유하게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초심상담자들은 스스로 진로방향성과 문제의 수준을 확인하고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수퍼바이저나 선배 또는 동료상담자로서 초심상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취업 관련 어려움의 종류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심상담자의 향후 진로 방향성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초심상담자가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 보았다. 먼저,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진로결정 동기로 크게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내적동기에 해당하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타심이 상담자로서의 자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정화, 이상민, 박성륜, 이지희, 2011). 이에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척도가 본척도와 부적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

수록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 중 내적동기가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다른 심리적 변인으로 ‘상담자 소진’과 상담자의 진로장벽 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담자 소진’은 상담자로서 소진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과 행동들을 측정한다. 소진된 상담자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함께 무력감, 절망감 등 좌절을 경험하고 내담자를 돌보는 것에 무관심해진다(Maslach, 1982). 소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직무 환경적 특성, 개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그리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규명되고 있다(김보라, 2002). 따라서, 본 척도와 상담자 소진의 정적상관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초심상담자가 진로장벽 지각이 클수록 상담자 소진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가 전문상담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지각하는 어려움, 즉 진로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진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의 구인 타당도는 어떠한가?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와 관련 척도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문항 개발

본 연구에서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의 예비

문항을 만들기 위해, 상담 관련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으로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경험이 있고, 상담 경력 3년 이내인 초심상담자 15명을 만나 1개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초심상담자의 기준은 송수경과 구자경의 연구(2017)를 기반으로 하였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을 준비하는 회원 15명과 대면으로 만나 개방형 질문을 통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동의서를 받고 비밀보장과 연구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한 후 초심상담자의 진로장벽을 탐색하고자 반구조화된 개방형 면접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단일질문으로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해 경험하는 진로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었다. 면담시간은 10~20분 정도로 1:1 개별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내용은 연구자가 면담을 진행하면서 바로 기록하고 중요한 주제별로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어 내부자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의 보상으로 4,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제공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상담 관련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으로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경험이 있고, 상담 경력이 3년 이내인 초심상담자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해당 오픈채팅방은 상담관련 학회별 1, 2급 상담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 및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채팅방이다. 온라인 설문 전 동의 절차를 거쳤고 설문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4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여자 137명(85.56%), 남자 23명(14.37%)으로 여자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는 20대 46명(28.75%), 30대 58명(36.25%), 40대 44명(27.50%), 50대 12명(7.50%)으로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력은 석사과정 48명(30.00%), 석사수료 및 학위 99명(61.87%), 박사과정 7명(4.37%), 박사수료 및 학위 6명(3.75%)으로 석사수료 및 학위가 가장 많았다. 상담경력 6개월 미만 38명(23.75%), 6개월 이상 1년 미만 24명(15.00%), 1년 이상 2년 미만 38명(23.75%), 2년 이상 3년 미만 60명(37.50%)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상담경력 6개월 미만의 상담 사례는 2사례 이하 25명(65.79%), 3사례 이상 5사례 이하 10명(26.32%), 6사례 이상 10사례 이하 3명(7.89%)으로 2사례 이하가 가장 많았다. 상담경력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상담 사례는 5사례 이하 10명(41.67%), 6사례 이상 10사례 이하 12명(50.00%), 11사례 이상 20사례 이하 2명(8.33%)으로 6사례 이상 10사례 이하가 가장 많았다. 상담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의 상담 사례는 10사례 이하 16명(42.11%), 11사례 이상 20사례 이하 14명(36.84%), 21사례 이상 30사례 이하 3명(7.89%), 31사례 이상 40사례 이하 1명(2.63%), 41사례 이상 50사례 이하 2명(5.26%), 51사례 이상 60사례 이하 2명(5.26%)으로 10사례 이하가 가장 많았다. 상담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의 상담사례는 10사례 이하 17명(28.33%), 11사례 이상 20사례 이하 15명(25.00%), 21사례 이상 30사례 이하 7명(11.67%), 31사례 이상 40사례 이하 5명(8.33%), 41사례 이상 50사례 이하 7명(11.67%), 51사례 이상 9명(15.00%)으로 10사례 미만이 가장 많았다. 각 상담경력별 상담사례 경험은 모두 10사례 미만이 가장 많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및 공인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및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실시했던 설문조사와 별도로 연구대상을 모집하여 상담 관련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으로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경험이 있고, 상담경력이 3년 이내인 초심상담자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재실시하였고 온라인 설문 전 동의 절차를 거쳤다. 설문참여에 대한 보상으로는 4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지급하였다. 여자 125명(82.78%), 남자 26명(17.22%)으로 여자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는 20대 36명(23.84%), 30대 66명(43.71%), 40대 37명(24.50%), 50대 11명(7.28%), 60대 1명(0.66%)으로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력은 석사과정 36명(23.88%), 석사수료 및 학위 102명(67.55%), 박사과정 9명(5.96%), 박사수료 및 학위 4명(2.65%)로 석사수료 및 학위가 가장 많았다. 상담 경력은 6개월 미만 25명(16.59%), 6개월 이상 1년 미만 11명(7.28%), 1년 이상 2년 미만 47명(31.16%), 2년 이상 3년 미만 68명(45.03%)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상담경력 6개월 미만의 상담 사례는 2사례 이하 9명(36.00%), 3사례 이상 5사례 이하 11명(44.00%), 6사례 이상 10사례 이하 5명(20.00%)으로 3사례 이상 5사례 이하가 가장 많았다. 상담경력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상담 사례는 5사례 이하 5명(45.45%), 6사례 이상 10사례 이하 6명(54.54%), 11사례 이상 20사례 이하 0명(0.00%)으로 6사례 이상 10사례 이하가 가장 많았다. 상담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의 상담사례는 10사례 이하 21명(44.68%), 11사례 이상 20사례 이하 14명(29.79%), 21사례 이상 30사례 이하 4명(8.51%),

31사례 이상 40사례 이하 2명(4.26%), 41사례 이상 50사례 이하 3명(6.38%), 51사례 이상 60사례 이하 3명(6.38%)으로 10사례 이하가 가장 많았다. 상담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의 상담 사례는 10사례 이하 14명(20.59%), 11사례 이상 20사례 이하 13명(19.12%), 21사례 이상 30사례 이하 13명(19.12%), 31사례 이상 40사례 이하 10명(14.71%), 41사례 이상 50사례 이하 6명(8.82%), 51사례 이상 12명(7.650%)으로 10사례 미만이 가장 많았다. 각 상담경력별 상담사례 경험은 모두 10사례 미만이 가장 많았다.

연구 절차 및 분석방법

문항 개발

상담자의 진로 장벽 척도의 예비문항을 만들기 위해, 초심상담자 15명과 개방형 질문을 통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해 경험하는 진로 고민이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용 분석을 통해 핵심 진술을 추출하였다. 이에 상담자의 진로 장벽에 대한 선행 질적 연구를 참고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상담자들이 가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록된 상담자들의 진로 고민도 고려하였다. 이를 전문가 2인(교수 1명, 박사과정 1명)이 검토하여 중복문항을 삭제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상담자의 진로 장벽 척도의 문항 개발을 통해 도출된, 11개의 하위요인과 86개의 예비문항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 SPSS 21.0 사용하였다. 결측값은 기대-최대화(EM)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각 척도의 신뢰도,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기술 통계로 수행하였다. 또한, 탐색 요인분석(EFA)은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축 요인 추출을 사용하였고 회전 방법으로 Kaiser 정규화가 있는 사각회전법(Promax)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및 공인타당도 분석

먼저 최종 선정된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21과 SPSS 21.0을 사용하였다. AMOS 21은 본 척도의 모형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SPSS 21.0은 구인을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분석,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진로탐색장애검사

상담자의 진로장벽 척도와 기존에 사용되는 진로장벽 척도와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은영(2002)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9개의 하위요인으로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흥미에 대한 확신 부족, 미래불안이 있고,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총 45개의 문항 중 '자기 명확성 부족' 요인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등이 있다. 각 문항들은 Likert식 4점 척도이다. 김

은영(2002)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71 ~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별 신뢰도가 대인관계 어려움 .742, 자기 명확성 부족 .819, 경제적 어려움 .809,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803, 직업정보 부족 .685, 나이문제 .859, 신체적 열등감 .821, 흥미부족 .788, 미래불안 .813으로 수용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28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 척도

상담자의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관련성 있는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 척도(이정화 등, 2011)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영향력, 상담에 대한 관심, 인정받는 진로, 융통성 있는 직업의 4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5개 문항이다. 15개 문항 중 '상담자의 긍정적 영향력' 요인은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시문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들은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이정화 외(2011)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70~.84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상담자의 긍정적 영향력 .768, 상담에 대한 관심 .807, 인정받는 진로 .834, 융통성 있는 직업 .788 수준으로 우수하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역시 .807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소진

상담자의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그 관련성이 예측되는 상담자 소진 척도(Counselor Burnout Inventory; CBI, Lee et al., 200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총 20개의 문항이 있다. 5가지 하위요인으로 탈진, 무능감, 부정적 작업환경, 내담자 가치저하, 사생

활 악화가 있다. 20개 문항 중 ‘무능감’ 요인은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시문항으로 ‘나는 내가 무능한 상담자로 여겨진다’ 등이 있다. 각 문항들은 상담자로서 소진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과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상담자 소진 척도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80~.84이다(Lee et al., 2007).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신체적 피로감 .850, 무능감 .829, 비협조적 직무환경 .730, 내담자 가치저하 .686, 사생활 악화 .663 수준으로 모든 요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는 .884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척도

Osipow, Carney, Winter, Yanico와 Koschier (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수준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 한 것 중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을 묻는 2문항만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미결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2개 문항 중 ‘진로결정’ 요인은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시문항으로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등이 있다. 고향자(1992) 연구에서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요인의 신뢰도는 .86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01로 나타났다.

결 과

문항 개발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과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100개의 문항을 만들고 이를 전문가 2인(교수 1명, 박사과정 1명)이 검토하여 중복 문항을 삭제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다시 구성하여 11개의 하위요인과 총 86개의 예비문항이 생성되었다. 11가지 하위요인은 ‘전공차이’, ‘교육과정 부정적 경험’, ‘역량부족’, ‘자기이해 부족’, ‘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근로조건’, ‘진입의 어려움’, ‘훈련과정정보부족’, ‘기대와 현실의 차이’, ‘진로정보부족’으로 구성되었다. 11개의 하위요인은 면접을 통해 생성된 문항들을 유목화하고 상담자의 진로장벽과 관련된 질적연구에서 도출한 구성요인과 기존의 대학생 및 다른 대상을 위해 만들어진 진로장벽의 구성요소를 참조하여 만들었다. 총 86개의 문항 중 ‘전공차이’ 문항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문항으로는 ‘학부 전공이 상담관련 전공이 아니라 취업 경쟁에서 불리할 것 같다’ 등이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상담자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적합한 문항 추출을 위해 전문가 평정 후,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결과를 가지고 양적 수정을 진행하였다. 86개의 모든 문항을 대상으로 주축 요인을 확인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확인한 결과 8요인에서 9요인 사이에서 고유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주축 요인을 8개 또는 9개로 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축 요인을 8요인과 9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다시 진행한 결과, 8개의 요인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이에 8개 요인으로 지정하고 사각 회전법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요인부하량이 .40 보다 작거나 두 요인이 이상에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남은 문항 중 각 요인별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3개의 문항만 남겨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8요인에 각각 3문항이 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적 수정을 통해 확인된 24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전문가 2인(교수 1명, 박사과정 1명)과 함께 질적 수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공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자기 이해 부족’ 요인의 경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주축요인이었으나,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이 평균 2.5점, 2.9점 수준으로 3점(보통이다)보다 낮아 연구참여자들이 실제로 장벽이라 느끼지는 않음을 확인하여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86개의 문항 중 68개의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8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연구표본이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KMO(Kaiser-Meyer-Olkin) 값이 .803로 적합함이 나타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18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6요인이 전체 변량의 61.053%를 설명한다.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전부 .7이상이며 대부분 .8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별로 보면, 요인 1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 드는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된 문항들로 ‘경제적 어려움’이라 명명하였다. 요인1에 포함된 요인부하량은 .7이상, 신뢰도는 .838로 나타났다. 요인 2은 상담자 훈련 과정을 선택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과 관련된 문항들로 ‘훈련과정의 정보부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에 포함된 요인부하량은 .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806으로 나타났다. 요인 3는 상담 분야의 처우나 급여의 열악함과 관

련된 문항들로 ‘근로조건’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에 포함된 요인부하량은 .5이상으로 신뢰도는 .759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상담자 진로의 취업정보와 관련된 문항들로 ‘진로정보 부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에 포함된 요인부하량은 .6이상으로 신뢰도는 .817로 나타났다. 요인 5은 상담 장면에서의 역량과 관련된 문항들로 ‘역량부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에 포함된 요인부하량은 .7이상으로 신뢰도는 .776으로 나타났다. 요인 7은 동료나 선배들과의 교류와 관련된 문항들로 ‘관계어려움’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6에 포함된 요인부하량은 .5이상으로 신뢰도는 .829로 나타났다. 각 문항들이 포함된 하위 척도의 요인 부하량 값은 모두 .5이상, 대부분 .6이상이고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7이상,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47이므로, 각 요인들에 대하여 문항들이 측정학적 신뢰와 타당함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 진로 장벽 예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6개 하위 요인과 전체 척도 총점 상관분석 결과, 모든 하위요인과 전체 척도와의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에서 ‘근로 조건’과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로, 나머지 하위요인들이 하나로 묶이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근로 조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상담자의 진로장벽에 있어서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있어 내적 요인인 다른 하위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위요인 및 전체 척도와의 상관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상담자 진로장벽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8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χ^2	1251.15				
		자유도(df)	153				
		p	.00				
요인명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4	5	6
경제적 어려움	1. 대학원 학비 이외의 상담 수련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	.84	-.07	-.02	-.07	.00	.13
	2. 상담자가 되기 위해 돈이 많이 들고 (상담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 부담이 된다.	.77	.08	.03	.04	.07	-.08
	3. 상담 훈련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	.75	.03	.13	.02	-.10	-.03
훈련과정 정보부족	4. 어디에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02	.79	-.14	-.12	-.14	.18
	5. 상담 수련 센터나 슈퍼바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01	.78	.04	.05	.08	.02
	6. 슈퍼바이저를 선택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	.02	.76	.03	.07	.08	-.16
관계어려움	7. 동료들과 취업, 상담정보 등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03	-.02	.93	-.01	-.03	.03
	8. 상담자 진로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08	-.07	.68	.04	-.10	.02
	9. 선배들과 교류가 부족해 상담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24	.06	.52	-.05	.14	-.02
진로정보부족	10. 상담자로서 어떻게 취업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	.18	-.00	-.14	.82	-.07	.11
	11. 상담자로 취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18	.08	.11	.72	-.03	.02
	12. 상담자가 되는 루트(경로)를 잘 모르겠다.	.00	-.08	.02	.70	.10	-.10
근로조건	13. 상담 분야는 고학력에 비해 처우나 급여가 열악하다.	.09	-.00	-.06	-.04	.79	-.02
	14. 상담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그에 비해 급여가 적다.	-.10	.09	.04	-.01	.75	.05
	15.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해 든 노력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한다.	-.03	-.07	-.05	.07	.71	.09
역량부족	16. 내담자를 만날 때 긴장된다.	-.13	.06	.17	.04	.02	.76
	17. 내담자가 나를 무능하게 볼까 걱정된다.	.03	-.02	-.06	-.02	.04	.75
	18. 내담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16	-.04	-.06	-.01	.06	.51
	평균	4.54	3.68	3.44	3.14	4.65	3.57
	표준편차	.58	.88	.95	.81	.47	.81
	고유값	4.76	2.61	1.37	.88	.75	.62
	설명량	26.42	14.51	.59	.91	.17	.46
	누적설명량	26.42	40.93	48.52	53.42	57.60	61.06
	신뢰도	.838	.806	.829	.817	.759	.776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 계수

	1	2	3	4	5	6	7
1. 경제적 어려움	1						
2. 훈련과정정보부족	.233**	1					
3. 관계 어려움	.279***	.553***	1				
4. 진로정보부족	.175*	.498***	.548***	1			
5. 근로조건	.526***	.179*	.144*	.058	1		
6. 역량부족	.130	.363***	.325***	.300***	.094	1	
7. 전체	.517***	.772***	.790***	.725***	.407***	.595***	1

주. * $p < .05$, ** $p < .01$, *** $p < .001$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 6요인 18문항 모형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초심 상담자 151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180.51$, $TLI=.93(>.9$ 적합), $CFI=.95(>.9$ 적합), $RMSEA=.06(.05\sim 1$ 사이 수용가능)으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NNFI$ 와 CFI 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라 할 수 있고, $RMSEA$ 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으며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각 적합도 지수별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RMSEA$ 는 .05~.08로, CFI 는 .90 이상으로 나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통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에서 모델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공인타당도 분석

상담자 진로장벽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탐색장애검사, 상담자의 진로결정 동기 척도, 상담자 소진, 진로결정검사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상담자 진로장벽 하위척도와 진로탐색 장애 검사의 하위척도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01\sim .65$, $p<.05\sim .001$)이 나타났다. 진로탐색장애검사는 한국 대학생으로 만들어진 진로장벽 척도로 기존의 진로장벽 척도와 본 척도와의 정적 상관관계를 통해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상담자 진로장벽 하위척도와 상담자의 진로결정 동기 하위척도와의 상관분석에서도 대부분 상담자 진로장벽 하위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r=-.02\sim -.22$, $p<.01\sim .05$)이 나타났다.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척도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진로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값	180.51	120	.93	.9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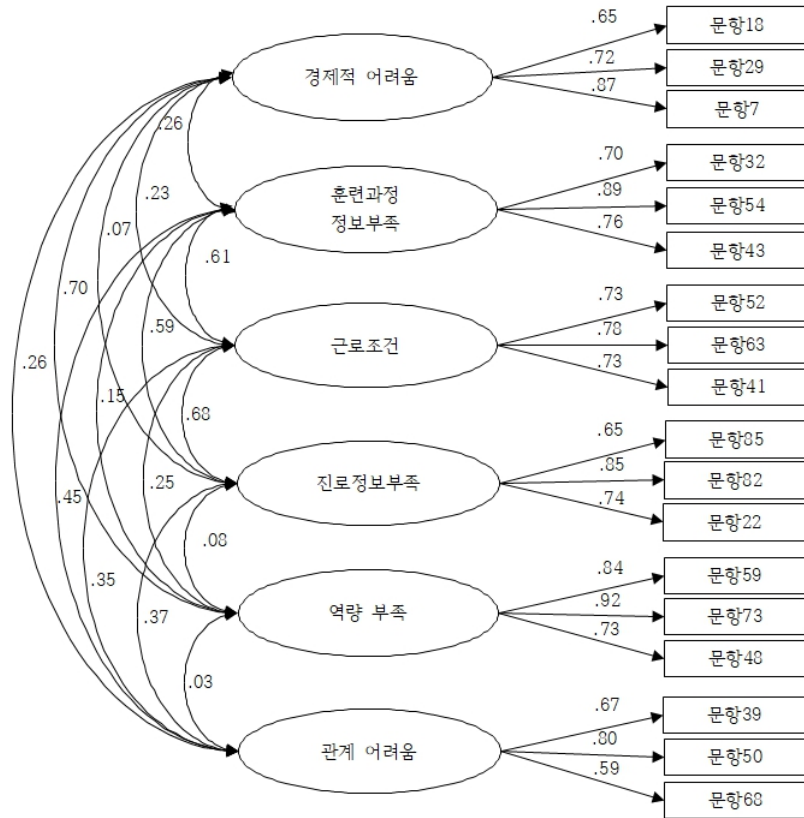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결정 동기를 알아보는 척도로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동기에 해당하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타심이 상담자로서의 자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정화 등, 2011).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척도와 본척도와 의 부적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상담자 진로장벽 하위 척도와 상담자 소진의 상관분석에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02 \sim .30, p<.05 \sim .001$)이 나타났다. 상담자 소진 척도는 상담자로서 소진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과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다. 소진된 상담자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함께 무력감,

절망감 등 좌절을 경험하고 내담자를 돌보는 것에 무관심해진다(Maslach, 1982). 소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직무 환경적 특성, 개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그리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규명되고 있다(김보라, 2002). 따라서 본 척도와 상담자 소진의 정적상관을 예상하였고 이를 확인하였다. 상담자 진로장벽 하위 척도와 진로결정 검사 하위척도와 의 상관분석에서도 상담자 진로장벽 하위척도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r=-.09 \sim -.25, p<.01 \sim .05$)이 나왔다. 진로결정검사는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을 묻는 2문항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편안함과 어떻게 진로를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항이다.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경우 진로장벽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타당도 검사 결과 본 척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상담자 진로장벽과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상담자 진로장벽의

‘경제적 어려움’은 진로탐색 장애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불안’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의 외적동기인 ‘인정받는 진로’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상담자 소진의 ‘신체적 피로감, 비협조적 직무환경’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담자 진로장벽의 ‘훈련과정정보부족’

표 4. 상담자 진로장벽 하위 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하위 척도 변인	경제적 어려움	훈련과정 정보부족	근로 조건	진로정보 부족	역량 부족	관계 어려움	전체
진로탐색 장애	대인관계 어려움	.089	.172*	.102	.192*	.358**	.134	.298***
	자기 명확성 부족	.086	.356***	.070	.203*	.565***	.172*	.449***
	경제적 어려움	.409***	.210**	.245**	.093	.272**	.246**	.36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46	.164*	-.024	.215**	.255**	.026	.228**
	직업정보 부족	.080	.430***	.122	.657***	.341***	.460***	.609***
	나이 문제	.144	.155	.119	.236**	.241**	.253**	.313***
	신체적 열등감	.013	.059	.078	.292***	.130	.126	.205*
	흥미 부족	.090	.186*	.050	.194*	.354***	.122	.375***
	미래 불안	.252**	.286***	.210**	.365***	.353***	.252**	.498***
	전체	.179*	.328***	.168*	.404***	.469***	.302***	.552***
상담자 진로 결정 동기	상담자의 긍정적 영향력	-.029	-.044	-.070	-.088	-.219**	-.055	-.221**
	상담에 대한 관심	.053	-.070	.106	.043	-.148	.176*	-.026
	인정받는 진로	-.161*	-.073	-.222**	-.109	.017	-.186*	-.177*
	융통성 있는 직업	-.125	-.183*	-.071	-.019	-.107	-.066	-.171*
	전체	-.109	-.154	-.100	-.063	-.169*	-.055	-.228**
상담자 소진	신체적 피로감	.192*	.068	.188*	.053	.363***	.190*	.292***
	무능감	.121	.291***	.049	.168*	.628***	.207*	.471***
	비협조적 직무환경	.245**	.171*	.268**	.079	.274**	.250**	.328***
	내담자 가치저하	-.150	.124	-.142	.295***	.253**	.222**	.251**
	사생활 악화	.060	.022	.151	.129	.185*	.131	.188*
전체	.150	.183*	.161*	.181*	.476***	.269**	.421***	
진로결정	진로결정 확신	.123	-.094	.067	-.245**	-.203*	-.116	-.219**

주. * $p < .05$, ** $p < .01$, *** $p < .001$

은 진로탐색장애의 대부분의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의 외적 동기인 ‘융통성 있는 직업’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상담자 소진의 ‘무능감, 비협조적 직무환경’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담자 진로장벽의 ‘근로조건은 진로탐색장애의 ‘경제적 어려움, 미래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의 외적 동기인 ‘인정받는 진로’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상담자 소진의 ‘신체적 피로감, 비협조적 직무환경’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담자 진로장벽의 ‘진로정보부족’은 진로탐색 장애의 대부분의 하위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담자 소진의 ‘무능감, 내담자 가치저하’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진로결정 확신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상담자 진로장벽의 ‘역량부족’은 진로탐색장애의 대부분의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의 내적 동기인 ‘상담자의 긍정적 영향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상담자 소진의 모든 하위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진로결정 확신과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담자 진로장벽의 ‘관계 어려움’은 대부분의 진로탐색 장애의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의 내적 동기인 ‘상담에 대한 관심’과 외적 동기인 ‘인정받는 진로’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담자 소진의 대부분의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확신과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경제적 어려움, 훈련과정정보부족, 관계 어려움, 진로정보부족, 근로조건, 역량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총 18개의 문항 중 ‘경제적 어려움’ 요인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 돈이 많이 들고 이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 부담이 된다.’ 등이 있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 척도식 5점 척도이다.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전부 .70 이상이며 대부분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2차 설문한 결과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795, 훈련과정 정보부족이 .826, 관계 어려움이 .790, 진로정보부족인 .792, 근로조건이 .848, 역량부족인 .723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역시 .854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의 진로장벽 수준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기존에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 상담자 진로장벽에 관한 선행연구와 상담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항을 개발하였다. 상담전공 관련 석사 재학 이상의 상담 경력 3년 이내인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고, 상담자 진로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6개의 하위요인과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였다.

첫째,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한 결과, 총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담자가 되기 위해 드는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요인 2는 '훈련과정 정보부족'으로 상담자 훈련 과정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정보가 부족한 어려움을, 요인 3은 '근로조건'으로 상담 분야의 처우나 급여의 열악함을, 요인 4는 '진로정보부족'으로 상담자 진로의 취업정보를 얻는 어려움을, 요인 5는 '역량부족'으로 상담 장면에서의 역량적 한계를, 요인 6은 '관계 어려움'으로 동료나 선배들과의 교류와 관련된 어려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구성요인은 기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 척도의 구성요인과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차별적인 부분도 있다.

기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진로장벽척도(황매향, 박은혜, 이아라, 2005)와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영(2002)의 진로탐색장애 검사의 구성요인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의 '경제적 어려움' 요인은 기존의 남녀 청소년 진로장벽 척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세대나 계층을 뛰어넘어 개인의 진로선택과 준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는 김지연 등의 연구(2009)에 따르면, 초심상담자에 비해 이미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전문상담자들도 학력에 비해 대우가 낮은 점과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대로 '근로조건'의 구성요인은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에서 차별적으로 추출된 구성요인이다. 이는 상담자 직무가 고학력과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비해 대우나 처우가 열악한 직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근로조건'이라는 차별적 진로장벽 요인은 상담자들이 학업 수행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현저히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대학상담실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Simon & Wachowiak, 1983)는 보고를 반영하는 것이다.

'훈련과정정보부족'의 구성요인도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에서 차별적으로 추출된 구성요인이다. 이 구성요인은 훈련과정에 대한 명확한 루트나 지침이 없는 상담자 진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박신영의 초심상담자의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2017)에서 도출된 3개의 하위 영역 중 '상담자 진로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것'과, 이선미의 상담전공 교육대학원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2018)에서 도출된 4개의 하위 영역에서도 '상담 교육 과정과 수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척도의 구성요소이다. 요인추출 결과 기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진로장벽 척도와 차별화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진로장벽으로는 상담자가 경험하고 지각하는 실질적인 장벽의 어려움을 모두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6개의 구성요인은 상담자의 진로장벽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상담자들의 진로장벽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한 요인들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한다. 본 척도의 '경제적 어려움'은 선행연구에서 대학원 교육과 별도로 외부에서 수행하는 개인 수련과정이 수련생들을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박신영, 2017) 경제적 어려움이 상담자의 진로장벽의 외적요인(정경빈, 조성호, 2009)이 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근로조건'은 상담자들이 학업 수

행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현저히 낮은 급여 수준이 중도포기에 이르게 하고(Simon & Wachowiak, 1983) 훈련비용의 부담감은 큰데 반해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재하여(이선미, 2018) 진로유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결과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진로정보부족’은 모호한 진로정보로 인한 막막함(노인희, 2021)과 취업에 관한 정보교류부족(이선미, 2018) 상담자의 진로장벽으로 제시한 연구 결과를 확인시켜준다. ‘역량부족’은 상담자로서의 자신감 부족과 스스로 역량을 의심하고 걱정하고(이선미, 2018), 상담자로 자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경험하는 우울감과(정경빈, 조성호, 2009) 상담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부족(김지연 등, 2009) 그리고 수행불안과 내담자와 적절한 정서적 교류 유지의 어려움(Skovholt & Ronnestad, 2003)을 제시하였던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훈련과정 정보부족’은 부족한 현장실습의 기회(노인희, 2021)와 훈련제도의 조건 맞추는 어려움이(이선미, 2018) 초심상담자의 진로장벽이 되다고 제시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어려움’은 초심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긍정적 지지를 위한 멘토 부족(Skovholt & Ronnestad, 2003) 제시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상담자 진로장벽 척도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하위요인 .7~.8이고, 전체 신뢰도 .854이다. 또한 이미 개발된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 척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탐색장애척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상담자 진로장벽 하위 척도와 상담자 소진 척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결정 검사 하위 척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상담자 진로

장벽 척도가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측정도구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심상담자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심상담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상담자 발달 과정에서 중도탈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Skovholt & Ronnestad, 2003). 초심상담자의 수련과정 중 중도탈락과 유지에 따른 스트레스 연구(정경빈, 조성호, 2009)의 제언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황채운 등(2009)도 초심상담자의 수련과정 포기 경험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제한적임을 지적되고 있다(정문주, 조한익, 2016). 아직도 상담자 양성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중도 포기에 관련 경험을 탐색한 연구가 부족하다 계속 지적되고 있다(박신영, 2017). 본 연구에서 개발된 초심상담자 진로장벽 척도는 상담자가 진로 발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와 영역을 제시해줌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담자의 진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적응 문제가 현저한 현대 사회에서 상담의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상담자의 수요와 공급도 크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의 법제화도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담 서비스의 양의 증가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자가 되길 희망하거나 이미 상담자의 길로 들어서 유능한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초심상담자들을 돌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초심상담자 진로장벽 척도는 초심상담자를 관리하고 돌보는 장면에서의 활용점이 높다. 손은령(2004)에 따라

면 개인의 진로장벽의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진로 대안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관련 진로행동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통해 초심상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취업 관련 어려움의 종류와 정도를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확인할 수 있으며, 슈퍼바이저로서 혹은 동료 상담자로서 초심상담자의 진로 설정을 위한 상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본 척도를 활용하여 초심상담자는 스스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스스로 실시하여 본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심각도나 진로장벽 영역의 변화를 확인하고 진로 방향성과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거나 적절한 자기돌봄(self-care)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심상담자에 대한 용어와 기준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심상담자의 정의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상담자의 용어와 기준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초심상담자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둘째, 초심상담자를 상담경력 3년 이내로 두었지만, 각 기간 별로 경험하는 진로장벽이 다를 수 있어, 모두 유사한 진로장벽을 경험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전영숙과 강혜영의 연구(2010)에 따르면 진로장벽의 지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초심상담자에게도 비슷한 맥락의 결과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상담 경력과 자격증 유무 등을 세분화하여 진로장벽 척도를 후속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적인 편파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무선 표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더 많은 표본 대상으로 추후 연구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은배 (2011). 201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SM2011-12). [KEDI] 연구보고서, 1-419.
- 김보라 (2002). 특수체육지도자의 환경적 특성과 소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2).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219-240.
- 김지연, 이동귀, 한나리 (2009). 상담일반: 초심상담자와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0(2), 769-792.
- 김진숙 (2005). 상담자교육에서 성찰적 실천의 의미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5-11 17(4), 813-831.
- 노인희 (2021). 상담전공 학부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영 (2017). 초심상담자의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 진로단절 사례를 중심으로. 서

- 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 (2004). 진로선택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 *상담학연구*, 5(3), 623-635.
- 손은령, 김계현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 송수경, 구자경 (2017). 초심상담자에 관한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8(5), 1-19.
- 이선미 (2018). 상담전공 교육대학원생의 진로동기, 진로장벽에 관한 질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이상민, 박성륜, 이지희 (2011). 상담자 진로 결정 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2(6), 2145-2161.
- 임후남 (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고등교육통계편(SM2021-07). *{KEDI} 연구 보고서*.
- 전영숙, 강혜영 (2010). 탈북여성의 진로장벽척도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11(4), 1483-1500.
- 정경빈, 조성호 (2009). 초보상담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인간이해*, 30(2), 45-60.
- 정문주, 조한익 (2016). 상담자 발달과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7(6), 141-164.
- 최수옥 (2002).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매향, 박은혜, 이아라 (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005-12 16(2), 125-159.
- 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강지연(2009). 상담일반: 상담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3), 1359-1382.
- 후생신보 (2021.10.15.). [국감]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증가... 심리상담 920% 증가. <http://www.whosaeng.com/130919>. 2022.05.12. 발췌
- Lee, S. M., Baker, C. R., Cho, S. H., Heckathorn, D. E., Holland, M. W., Newgent, R. A., Ogle, N. T., Powell, M. L., Quinn, J. J., Wallace, S. L., & Yu, K.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s of the Counselor Burnout Inventor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0(3), 142-154.
- Maslach, C. (1982). *Burnout, the cost of car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Osipow, S. H., Carney, C. G., Wint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thon Consulting and Press*.
- Pica, M. (1998). The ambiguous nature of clinical training and it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student clinician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5(3), 361-365.
- Simon, R. B. & Wachowiak, D. (1983). Career patterns in counseling centers: Counseling psychologists review their past, present, and futur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 Practice*, 14(1), 142.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2003). Struggles of the novice counselor and therapis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 45-58.
-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to self esteem,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Weatherford, P. C., Brooks, D., & Allred, L. B. (2016). Keeping up with the times: Improving the modern counselor through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technological policy, and positive risk tak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1), 2.

원 고 접 수 일 : 2022. 08. 16

수정원고접수일 : 2022. 11. 07

게 재 결 정 일 : 2022. 11. 28

Development of a Career Barrier Scale for Beginner Counselors

Yeon Jeong Lee

Janghee Lee

Sang Min Lee

Korea University / Student

Korea University / Professor

Beginner counselors may drop out of their career development process due to various stressors. Thus, this study developed a career barrier scale that can be used to understand and measure the career barrier levels of beginner counselors. Preliminary questions were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beginner counselors. Then,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160 beginner counselors using the preliminary questions. As a result, 18 questions were extracted and classified into six domains (economic difficulties, lack of training information, working conditions, lack of career information, lack of competency, relationship difficultie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data of 151 beginner counselors, which confirmed that the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was adequ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were confirm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with other career-related scales. The usability and implications of the developed counselor career barrier scale were discussed.

Key words : beginner counselor, career barrier, career barrier scale, scale development